



::유대교와 기독교 VIII

그간 8회에 걸쳐 연재했던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글을 마친다.
부족한 글을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 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글들은 신약학회의 학회지에 2004년부터 발표해 왔던 유대교 연구를
목회자와 신학도를 위하여 상당부분을 첨가하여 재서술한 것으로,
독자들의 격려로 지난달 11월에 『기독교 신학의 뿌리: 유대교 사상의 형성과 신약성서 배경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라는 제목 하에 출간되었다.
필자의 또 다른 유대교와 기독교 연구로는 2004-2006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후원을 받아
헬라어 원전에서 번역한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가 있으며,
계속하여 2007-현재까지는 M. Hengel, *Judentum und Hellenismus*(『유대교와 헬레니즘』)를
번역하며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유대교와 묵시문학의 삶의 자리

박정수 ≪ 성결대학교 교수 / 신약학

지난 호에서 우리는 기원전 167년 이후 예루살렘 성전제주의 중단과 이방인의 지배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했던 이스라엘인들의 경험과 세계이해가 유대교의 묵시문학을 태동시켰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조를 묵시문학의 시공간으로 풀어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묵시문학적 세계이해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1. '동물묵시'와 인자의 상징

제1에녹서와 다니엘서의 사회사적인 측면은 이스라엘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그것의 극복에 대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에녹공동체의 기원에 대한 보카치니(G. Boccaccini)의 주장은 검토해

1) 이 글은 그간 성서마당을 통해서 발표되었던 글을 종합하여 지난 2008년 11월 10일에 출간한 본인의 저서 『기독교 신학의 뿌리 : 유대교 사상의 형성과 신약성서 배경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39-50의 내용이다.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는 이 공동체가 “기원전 4 혹은 3세기에 나타났는지는 불확실하나, 분명한 것은 에녹계 유대교(Enochic Judaism)가 사독계 제사장 체계의 권력에 반대하는 반(反)-사독 제사장 그룹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²⁾ 우리는 앞에서 제1에녹서의 가장 이른 전승으로 볼 수 있는 파수꾼의 책과 ‘10주간 묵시’에서 토라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 권위와의 충돌을 지적했다. 이 충돌의 양상은 성전의 유효성까지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는 장차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에 제5주의 끝에 영광과 위엄의 집이 영원히 지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제6주의 끝에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눈이 멀게 되고, 그 모든 마음이 지혜를 잃고 불경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승천할 것이다. 또한 그 주의 끝에 위엄의 집은 불에 타고 선택된 뿌리의 온 종족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93:7-8).

보카치니의 이론은 쿰란문헌들을 통하여 쿰란 공동체의 기원을 찾아가는 매력적인 작업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그 “에녹계 공동체가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모른” 채로 남아있다.

그러나 좀 더 넓게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보카치니의 관점은 개연성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에스겔의 회복의 비전은 포로기 이후 전적으로 ‘보이는 성전’의 재건과 연결되어, 한편으로는 현실에서 이 새 성전의 구조에 참여한 제사장 그룹과 다른 한편으로는 다가올 미래에 속한 하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을 고대하던 천년왕국주의적 그룹으로 분리되어 수용되었다. 여기서 전자는 사독계 제사장

2) Boccaccini, *Beyond*, 77f. 보카치니(Boccaccini)는 이것을 제사장계열 가운데서도 비사독계 그룹과 연관시킨다(앞의 책, 77-79). 그러나 핸슨(Paul D. Hanson)은 에녹 문헌을 비제사장 계열과 연관시킨다.

그룹이요, 후자는 에녹계 제사장과 연결될 수 있다.³⁾ 이러한 묵시문학의 기원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은 일찍이 핸슨(Paul D. Hanson)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포로 귀환 후 제사장적 리더십의 분열을 “주류”(clerus major)와 “비주류”(clerus minor) 그룹의 갈등으로 이해한다. 전자는 “사독계 제사장 그룹”으로 후자는 먼저 “포로기 이전의 사독계 성전 구조가 회복의 제사장적 프로그램으로 변형”⁴⁾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의 제사장 그룹은 에스겔과 연결되어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예언전통에서 학개와 스가라는 제사장적 성전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역대기의 통합적인 흐름이 등장한다. 이 주류에서 밀려난 묵시적 종말론 그룹이 스가라 9-14장에서 나타난다.⁵⁾ 물론 여기서 핸슨은 이 비주류의 묵시적 그룹과 에녹계 제사장 그룹을 연관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이 현실 제사장적 통치에서 권력을 주도했던 사독계와 그것에서 후퇴한 묵시문학적 그룹으로 나뉘고 있다는 통찰에 있어서 두 학자는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포로기 이후 묵시문학의 기원을 제1에녹서와 전승사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헬레니즘 시대의 개막과 함께 변화된 환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묵시적 그룹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는, 보카치니가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사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제1에녹서와 다니엘서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사회학적 그룹들을 통하여 묵시문학의 삶의 자리를 설명해보자. 에녹서의 묵시적 공동체를 상징하는 중요한 본문은 꿈의 책(83-90장) 가운데에서, 이른바 동물묵시(85-90)에 담겨 있다.⁶⁾ 니켈스부르크

3) 위의 책, 76. 보카치니는 이러한 계보를 통하여 쿨란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에녹계 유대교를 쿨란의 뿌리와 연관시키고자 한다(위의 책, 53-79).

4) Paul D. Hanson, *The Dawn of Apocalyptic*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228.

5) 위의 책, 228-40; 240-62; 269-79; 280-87.

6) 이 본문이 최종적으로 편집된 시기는 90:9b-16에서 암시되는 마카베오(빨을 가진 숫양)의 향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면 기원전 163년 혹은 그보다 얼마 후라고 할

(George W. E. Nickelsburg)는 동물묵시가 “자신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르는 한 그룹”(마카상 2:42; 참조 7:12-18)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추측한다.⁷⁾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그룹과 에녹공동체를 연관시킬 수 있을까? 이 동물 묵시에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황소로 묘사되는데, 야곱 이후로는 흰(숫)양으로, 그의 후손들은 “12양의 무리”로 묘사된다(85:12). 그리고 원수의 나라들은 이 양 무리를 공격하는 맹수나 새들로 묘사된다. “동물묵시”의 3부에는 70명의 목자가 등장한다. 창세기 10장에 의하면 70인은 이방인들을 암시하는데, 하나님은 이 천사 목자들에게 양들에게 벌을 주는 임무를 부여하신다. 그들의 통치기간은 기간은 각각 12, 23, 23, 12기간인데, 학자들은 이것에 7배를 한 햇수로 84, 161, 161, 84년을 말하므로, 역사적으로 산정하면 제1기간은 므낫세의 통치기간 말년인 대략 각각 기원전 587/577년의 성전파멸 직전(89:66)까지, 제2기간은 귀환과 성전이 재건된 426/416(89:72-74)까지, 제3기간은 알렉산더 대제의 정벌이 일어나는 332년을 포함하여 265/255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기간은 181/171년까지이다.⁸⁾ 이렇게 보면 그 각각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프톨레메오스, 그리고 셀류쿠스 왕조의 시기까지가 된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명백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징벌의 기간 최후의 시점(대략 기원전 200년경)에서 흰 양으로부터 태어난 “작은 어린양”으로 묘사된 새로운 그룹이 일어나 다른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한다. 그 후에 나타난 거대한 뿔을 가진 어린양은 유다 마카베오를, 그리고 눈먼 양들은 배교한 이스라엘인들을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꿈의 책은 셀류쿠스 왕조하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심판으로 연단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볼 4개의 주기 가운데 저자가 속한 마지막 주기를 181 혹은 171년을 잡는다면, 최종 편집 시기는 169년 혹은 그 얼마 후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George W. E. Nickelsburg, *1Enoch I: A Commentary on the Book of 1 Enoch Ch. 1-36*; 81-108.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361.

7) Nickelsburg, *1Enoch I*, 363. 참조 Charles, Enoch, 206f.

8) Diamant, “Sectarian Literature,” 545; Nickelsburg, *1Enoch I*, 392f.

하시고, 회복하는 환상을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꿈의 책에서 중요한 것은 반역한 천사들의 죄가 악과 부정을 이 세상에 번지게 하여, 창조의 질서가 혼돈되고 세계는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상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83:3f; 84:4; 86:1-6). 동물묵시는 이 사상에 근거하여 지금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타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성전도 예외가 아니다. “그 위에 있는 모든 떡은 오염되었고 부정하였다”(89:23)는 것이다.⁹⁾

이것보다 이른 전승사를 반영하고 있는 제1에녹서의 ‘10주간의 묵시’에서도 현재의 시기는 박해와 배교의 시기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하여 제4주와 제5주에 나타나는 현재의 율법과 성전의 한계가 나타나고, 제7주에는 “배교의 세대가 일어나” 많은 배교를 저지르게 된다. 그러나 이때 “선택된 의로운 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93:9-10). 물론 이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자들은 아니지만, “영원한 의의 나무”(the eternal plant of righteous)¹⁰⁾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그러나 제8주에 역사는 심판을 통해서 정의가 세워지고 성전이 회복되는데, 이는 영원한 성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9주와 제10주는 최후의 심판과 새로운 창조를 통한 시원의 시기로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제8주, 의(義)의 주가 있을 것인데, 이때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실행될 의의 심판의 칼이 주어질 것이고, 죄인들은 의로운 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제8주의 끝에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인하여 집을 얻을 것인데, 이 집은 대왕을 위하여 영광 중에 영원히 지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제9주에 의로운 심판이 온 세상에 드러나 불경한 자들의 모든 행동이 온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또한 세상은 파멸을 향해 기록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정직의 길을 보게 될

9) Boccaccini, *Beyond*, 82f.

10) “이 의로운 심판의 나무”는 하시딕과 콤란공동체의 지도자와 연관될 수 있다.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제10주에, 일곱 번째에 파수꾼에게 실행될 영원한 심판이, 그리고 천사들의 한 가운데서 나오게 될 위대하고 영원한 하늘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처음 하늘이 사라져, 새로운 하늘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권세자들은 일곱 배의 빛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91:12-16).

비록 다니엘서가 에녹서의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관점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동물묵시’와 같이, 본질적으로 이 세계는 심각하게 타락되었다는 역사의식을 갖는다. 즉, 바빌로니아로부터 시작되는 “네 왕국”(단 7장)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70이레의 해를 포로가 되어야 한다(단 9장). 사악한 왕 안티오쿠스 4세는 땅에서 악과 타락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은 이스라엘 회복의 국면을 그들이 처한 고난의 현실에서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다니엘서 2장이나 7장의 환상은 역사 속에서 흥망의 운명을 경험할 네 왕국을 상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7장의 네 마리의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7:17)인데, 이는 “다른 나라와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러뜨릴 것”이다(7:23). 물론 이것은 헬레니즘식 개혁을 감행한 안티오쿠스 4세의 행위를 상징하고 있다. 이 환상에서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수여받는 “인자 같은 이”(7:13)가 등장한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꿈과 해석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보인다. 7장의 꿈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받을 것이지만(7:14), 꿈의 해석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받게 된다(7:18, 22, 27). 더 나아가 이들은 현재 4번째 짐승의 손에 넘겨져 박해를 받으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고 있다(7:25). 이는 결국, 하늘에서 오는 “인자 같은 이”를 박해를 받고 있는 지상의 성도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꿈과 해석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전승 사적 삶의 자리를 반영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7장의 “인자와 같은 이”라

는 표상은 초월적인 형이상학적 존재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현재 고난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표상하고 있다는 점이다.¹¹⁾ 그것이 설령 천사를 지시한다 하더라도 그 천사는 천상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존재이기에 신실한 이스라엘을 신원하는 자를 대변한다.¹²⁾ 그리고 “인자 같은 이”와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나라가 주어진다.

그(인자 같은 이)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7:14).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7:18).

현재의 심판을 통과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어질 인자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함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상은 다니엘서 2장의 환상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다. 다만 네 번째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늘에서 날아온 “뜨인 돌”임이 다를 뿐이다(2:34, 44-45).¹³⁾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2:44).

우리는 다니엘서와 제1예녹서 꿈의 책에서 고난 받는 이스라엘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것을 견디어 내는 “성도들”의 상징을 통하여

11) Wright, 『신약성서』, 483f. 490. 왕대일, 『목시문학과 종말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457f.

12) Collins, *Imagination*, 81-83

13) 왕대일, 『목시문학과 종말론』, 459.

헬레니즘 시대 묵시문학의 삶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거기에서 나온 묵시문학적 상징은 역사의 심판을 통해서 회복될 이스라엘의 삶의 고난이요, 최후의 심판으로 회복될 영원한 나라인 것이다.

2. 묵시문학과 이스라엘의 회복

앞서 살펴본 대로 제1에녹서의 환상과 전승, 계시의 권위의 문제는 포로기 이후 제2성전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제2성전의 재건은 포로기 이후 유대교 내부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샌더스(E. P. Sanders)는 특히 기원후 70년 이전까지의 유대교 문헌들에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희망이 여러 곳에 산재하여 나타나고 있으며,¹⁴⁾ 비록 이것에 대한 보편적이거나 일관된 사상을 피력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성전에 대한 희망은 성전이나 사제권의 개혁에 대한 열망보다는 종말론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결론짓는다. 그의 견해대로 이는 예언자들에게서 흘러내려 온 유대교의 종말론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포로기 이후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비전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⁵⁾ 니켈스부르크는 포로기 이후 종말론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연관성을 이렇게 표현했다.¹⁶⁾

14) 종말의 성전 고대를 의미하는 본문들을 전승사적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는 암시): 토비트 13,16-18(참조 사 54:11f); 14,5 제1에녹서 25:5; 90:28f; 91:13; 희년서 1:15-17, 27; 12족장유언서 벤야민서 9:2; 솔로몬의 시편 17:32(!); 11QTemple 29:8-18(!). Sanders, 『예수와 유대교』, 155-167.

15) 위의 책, 142. 적어도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내용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167).

16) Nickelsburg, *Mishna*, 14. 온과 슈튜어드(David E. Aune & Eric Steward) 역시 유대 묵시문학에 나타난 종말론적 회복이라는 문맥 속에서 성전의 회복을 발견한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적 경향을 갖는 것들로서 땅에 대한 지배권의 회복, 왕권의 회복(다윗 메시아니즘적),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회집, 그리고 예루살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배는 삶의 파괴와 제도들의 붕괴를 의미했다. 이 제도들은 결코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었다. 후기 성서시대의 유대교 신학과 문헌 대부분은 회복의 희망에 의해 영향을 받고 때로는 지배되기도 하였다. 그 희망은 흩어진 자들의 귀환, 다윗의 후손이 등장하여 이방인 지배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주권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새롭고 영화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한 백성이 회집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글에서 묵시문학의 시공간을 다루었던 관점은 묵시문학이 포로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어떠한 ‘문법’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에 대한 묵시문학적 관점과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의 비전은 깊은 연관을 갖는 것이다. 라이트(Nicolaus T. Wright)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관계의 회복에 대한 신앙이라고 본다. 이는 역사에 대한 종말론적 관점과 결부되고 있는데, 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계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둘째,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한 세계질서의 확립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셋째, 이스라엘의 현재의 곤경은 신의 계약에 대한 신실성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징벌로 이해된다. 넷째,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약을 지키며 인내하는 그의 백성을 신원하기 위하여 역사 안에서 활동할 결정적인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¹⁷⁾

렘과 성전의 최종적 회복을, 다른 한편으로 보편주의적 성향으로는 에덴의 회복과 창조의 회복에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David E. Aune & Eric Steward, “From the Idealized Past to the Imaginary Future: Eschatological Restoration in Jewish Apocalyptic Literature,” in Scott(ed.), *Restoration*, 147-77.

라이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포로로부터의 구속이라는 역사내적 의미와 역사 저편의 우주적 구속을 함께 염두에 두고 있는데, 묵시문학의 탄생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당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서 묵시문학의 가장 넓은 배경으로서 폭넓은 역사적 연속체(historical continuum)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의 역전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예전시대의 종들에게 비밀들을 계시하였고 또한 장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신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 결합되는 곳에서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묵시문학이, 왜 헬레니즘의 세력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강압하던 기원전 2세기에 꽃을 피우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묵시문학은 동시대의 유대교의 다른 집단들의 운동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¹⁷⁾ 묵시문학은 동시대의 유대문학들과 비교해 볼 때, 내용이 독특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 형식이 독특한 것이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현상이 그토록 강렬하게 상호작용하게 되었던 기원전 3-2세기의 묵시문학의 발전국면을 페르시아시대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과 헬레니즘 시대의 역사적 현실이라는 딜레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회복의 희망과 좌절의 교차지역이었던 팔레스타인은 역사의 차안(此岸)과 피안(彼岸)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용광로와 같았다는 사실이다.

17) Wright, 『신약성서』, 449-50. 라이트의 둘째 저작인 N. T. Wright, *Jesus and the Victory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편집되었다. Carrey C. Newman (ed.), *Jesus & the Restoration of Israel: A Critical Assessment of N. T. Wright's Jesus and the Victory of God* (Illinois: IVP, 1999).

18) Wright, 『신약성서』, 478f.

3. 건널목

우리가 이 책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했던 이유는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의 핵심적 맥락이 되고, 더 나아가 초기 기독교의 신학과 선포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샌더스(E. P. Sanders)는 예수의 사역과 의도가 “유대적 종말론”(Jewish eschatology)에 기초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는 여기서 ‘회복의 종말론’(Restoration eschatology)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샌더스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고대 유대교에서 종말론의 광범위한 문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¹⁹⁾ 예수의 선포와 사역은 바로 이 ‘회복의 종말론’ 위에서 있다고 생각한다.²⁰⁾

샌더스가 예수의 사역에서 그러한 단초를 발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성전에 대한 태도인데, 예수의 성전정화는 분명 성전을 파괴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으나, 파괴를 상징하는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종말에 회복될 새로운 성전을 대망하는 상징적 행위였다는 것이다.²¹⁾ 또 다른 하나는 예수가 ‘열둘’을 선택하여 불렀던 행동에는 분명히 자신의 사명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당시의 유대교의 문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했다고 생각한다.²²⁾ 아웨가 만물을 변화시키시고 자기 백성의 운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포로생활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역사에 있어서 지금 계약백성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 악의 희생물로 전락해 있다. 창조주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서 역사의 중국적인 변혁을 준비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어(B. F. Meyer) 역시 그의 저작 『예수의 의도』에 대한 탐구의

19) 그래서 그는 고대 유대교의 문헌들에서 ‘유대 종말론’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한다. Sanders, 『예수와 유대교』, 142.

20) 위의 책, 제1장 “이스라엘의 회복.”

21) 위의 책, 106f.

22) 위의 책, 153f.

결론에서, 예수 자신과 초기 기독교의 사명이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음을 밝히고 있다.²³⁾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자신의 사명인식이었고, 초기 기독교가 예수로부터 물려받은 그 사명과 비전의 중심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었다면(참조 사도행전 1:6), 이는 우리가 예수와 초기 기독교가 서 있는 유대교적 배경 속에서 심도 깊게 연구되어야 할 주제임에 틀림없다.

:: 박정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B.S.)와 서울신학대학교(M.Div.)를 나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Dr.theol.)에서 공부했다. 현재 성결대학교의 신약학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신약학회 총무로 일하고 있다.(메일: pjs@sungkyul.edu)

23) B. F. Meyer, *The Aims of Jesus* (London: SCM Press Ltd., 1979), 224-53.